골목길 '담장 허물기' 나선다

광주시, 내 집 주차장 설치땐 비용 90% 지원

내달까지 주민 수요 조사…내년 본격 추진

광주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골목길 담장허물기'(그린파킹)에 나선다. 20~30가구가 죽 늘어선 주택가 골목길에 이웃들이 모두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갖도록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추진하나='광주시는 지난달 28일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 설치비용을 9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주차장 설치비율은 79.2%로, 특히 주택가의 경우 골목길 주차난으로 인해 잦은 주차분쟁·소방차의 진입 어려움·자동차 파손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교통사고의 75%가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택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의 의견을 수렴해 주차장 설치유형 및 설치비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만든 후 2008년부터 소요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설득이 성공 열쇠='골목길 담장 허물기'는 이미 서울, 대구 등지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 주택가 주차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느냐다.

이들 도시에서도 최근 사생활 보호나 치안문제, 벌쩡한 담을 없애는 데 대한 혈세 낭비 지적 등으로 실적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 1999년 65건을 최고로 해마다 사업신청이 줄어 지난해는 절반인 33건으로 담장허물기 사업 실적이 뚝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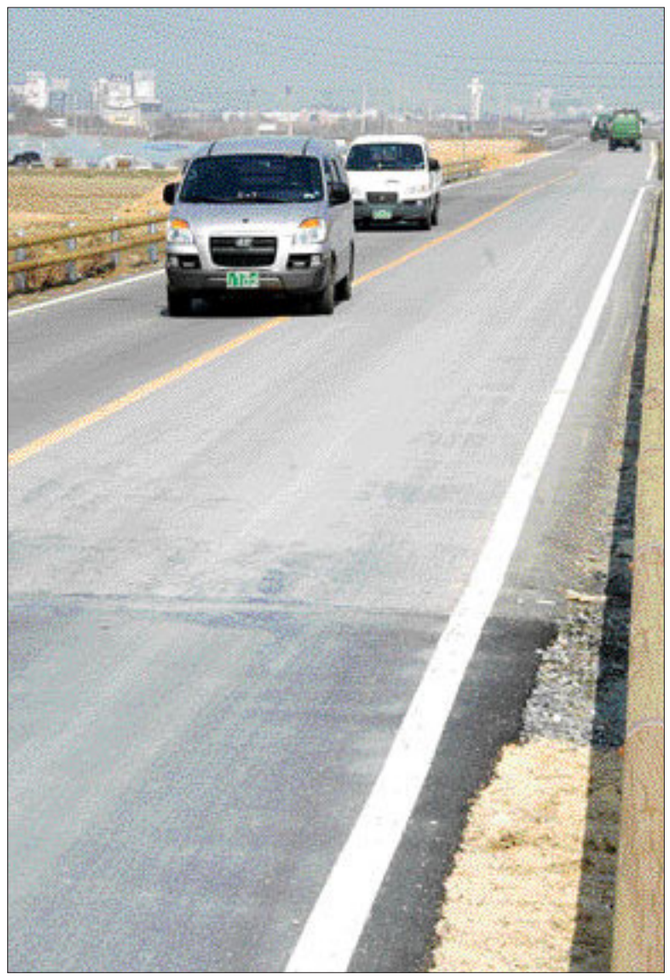
광주시서구의 경우 99년 11건에서 지난해엔 5건에 그쳤다. 남구는 2004년 4건, 2006년 1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골목길 전체의 벽을 허물면 이웃 간 정도 싹트고, 주차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정원도 가꾸게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방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방범시스템(CCTV) 구축비용을 지원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골목길 이웃끼리 담장을 허물고 정원과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는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의 '마을 정원만들기 사업'이나, 서울·대구 등지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확 뚫린 제방도로 광주시 광산구 첨단보훈병원에서 산동교를 잇는 2.2㎞(폭 10m)의 제방도로가 지난달 28일 개통됐다. 광산구가 27억 원을 들여 완공한 이 도로는 가드레일에 태양열 자동 발광장치를 부착, 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봄속으로 달려 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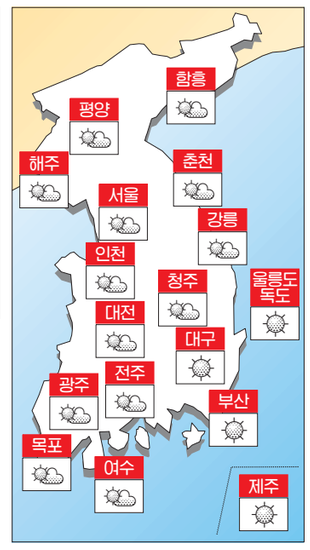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3월 1일 (음 1월 12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은 후 흐려짐	4~18℃
목 포	맑은 후 흐려짐	4~16℃
여 수	맑은 후 흐려짐	6~16℃
완 도	맑은 후 흐려짐	5~18℃
구 례	맑은 후 흐려짐	0~18℃
해 남	맑은 후 흐려짐	1~18℃
장 흥	맑은 후 흐려짐	1~18℃
고 흥	맑은 후 흐려짐	2~18℃
순 천	맑은 후 흐려짐	0~18℃
영 광	맑은 후 흐려짐	3~17℃
진 도	맑은 후 흐려짐	2~19℃
전 주	맑은 후 흐려짐	3~17℃
남 원	맑은 후 흐려짐	1~18℃
정 읍	맑은 후 흐려짐	3~1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4.0m

목포 밀물 00:08 13:14 썰물 05:43 18:32
여수 밀물 08:18 20:19 썰물 01:40 14:23



▲해뜸 07:03 ▲해짐 18:27 ▲달뜸 15:50 ▲달짐 05: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날 씨						
최저/최고	7/14	8/14	8/13	7/11	2/8	0/9

중국산 납품 등 신설학교 20여곳 적발

광주시교육청, 47명 징계

광주시교육청은 신설학교 개교 과정에서 물품을 부적정하게 구매했거나 인계인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학교 20여 곳을 적발해 관련자 47명을 대거 징계 처분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2004~2006년 개교한 신설학교 2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일제 감사를 벌여 2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47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설계와 다른 중국산 물품 납품 9개교(35종) ▲인수인계 미실시 7개교 ▲단체 수의계약 일상감사 회피 5개교 등이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 47명 중 5개교 9명은 경징계, 15개교 36명은 경고, 1개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해 납품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W중 전 교장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W중 전 행정실장 윤모(여·46)씨와 S중 전 행정실장 윤모(52)씨 등 2명은 파면 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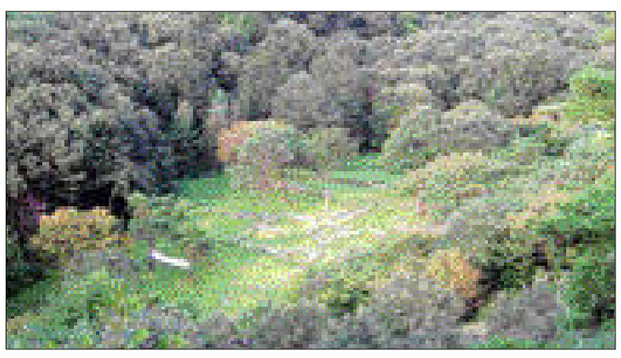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화순 '쌍산의소' 사적 지정된다

호남 의병활동 거점

문화재청은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전라남도기념물 제153호 '쌍산의소'(雙山義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 지정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쌍산의소'는 구한말 의병들이 일본 경찰에 대항해 전투를 준비하던 창의소(創義所) 터로 항일 의병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쌍산의소 의병성과 막사터 전경.

이곳은 의병들이 화약과 총기 등을 직접 제작해 사격훈련을 하는 등 호남 의병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유적으로는 대장간 자리, 화약을 채취했던 유황굴, 자연석으로 쌓은 의병성과 막사터, 훈련장, 호남창의소 본부 가옥 등이 남아있다.

'쌍산의소'는 30일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구한말 의병활동과 관련해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동학농민군의 최대 전적지인 '우금치 전적지'와 한말 충남 홍주성 전투에서 숨진 의병 수 백 명의 위패를 모신 '홍주의사총' 등이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성지식 여 〉 남, 성경험 남 〉 여

대학생 설문… 여대생 21% "섹스 OK"

대학생들의 성(性) 관련 지식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지만 성경험과 관련 매체 접촉은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강효윤씨의 석사논문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태도·행동의 특성과 성경험 예측요인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서울·경기지역 4년제 대학 학생 530명(여학생 331명, 남학생 193명)의 성 관련 지식을 측정한 결과 여학생은 100점 만점에 평균 69.17점, 남학생은 65.43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남학생은 성폭력 관련 지식이 46.11점에 불과했으나 여학생은 69.79점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성 관련 매체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대부분 매체에서 남학생의 긍정 응답비율이 여성을 압도했다. 유형별로는 ▲성인만화(여 23.6%, 남 54.6%) ▲포르노 잡지(여 1.9%, 남 27.2%) ▲성인영화(여 55.5%, 남 73.9%) ▲포르노 비디오(여 17.0%, 남 57.1%)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여 17.6%, 남 67.4%) 등이었다.

'스킨십 허용 범위'에 대해 여학생은 키스(46.1%)란 대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교(20.7%)· 손잡기(2.8%) 순이었다. 남학생은 성교(54.3%), 키스(18.6%), 손잡기(2.1%) 순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고민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정확한 성지식의 부족'(여 29.4%, 남 25.1%)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여학생의 경우 '순결'(20.6%), 남학생은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15.1%)이었다. /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 387명 인사단행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김제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부산 동부지청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인 차·부장급 검사 38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3월8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또 목포지청장에 김재현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순천지청장에 이동호 부산지검 2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명단 16면〉

광주지검 형사1부장에는 이기동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 형사2부장에는 이상철 법무연수원 교수가, 형사3부장에는 김경진 전 천안지청 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특수부장은 류혁상 순천지청 부장검사가, 공안부장에는 김용승 광주고검 검사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에는 김형준 김천지청 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됐다. 해남지청장에는 양부남 전주지검 부장검사가, 장흥지청장은 김우현 대검 검찰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강길주 마약조직범죄수사 부장은 의정부 지검 형사 3부장으로, 김종호 특수부장은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 부장으로, 이형철 공안부장은 부산지검 형사4부장으로, 박균택 형사3부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최권일기자 cki@

모범 수형자 687명 3·1절 특별 가석방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광주·전남 54명 등 모범수형자 687명(소년수 포함)을 지난달 28일 오전 특별 가석방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42명과 고령자·환자·장애인 등 노약 수형자 87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명,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 취득자 210명, 학사고시 등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8명, 외부통근작업자 96명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복역기간과 죄질,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재범 우려자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